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9호

권두시 | 천사들의 환희 | 최임순 **경남간호갤러리** | 서양화 | 최대식 **경남간호인** | 공직 39년 현장의 달인으로, 간호사는 나의 천직 | 강선희 **현장의 소리** | 김경남·김민휘·윤소영·정향자 **회원작품 맛보기** | 거창군간호사회·통영시간호사회·김영란·김지현·조석련 **또 다른 나의 삶** | 공명숙·김정화·김희 **제32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대국민 민트캠페인' 홍보활동 전개·'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2023년 간호법 제정 활동

경상남도간호사회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1923 2023

백년헌신

일시 : 2023년 3월 24일
장소 : 그랜드메규어 엠버서더호텔
2F 그랜드볼룸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

| 권두시 |

천사들의 환희

마음이 깊고 높아 찬란하게 빛난다
세월이 흐를수록 희생정신 하늘 높이 떠오른다
레이저 꽃처럼 그 사랑 변함없이 아픈 곳 힘든 곳도
목마르지 않게 촉촉한 생명력 환하게 만든다
부드럽고 타고난 포용과 관용이 감동이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천사들
전 세계 하늘 높이 휘날리는 독일 간 한인
간호사도 근면 성실 모국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덕
가슴 깊이 존재하는 사랑 애향심과 희생정신
흘림하여 후손대대 떠오르는 열정이 솟는다

천사들의 그 사랑 영원히 메아리친다
화답하는 붉은 심장 타올라 용광로 불꽃처럼
민족의 천년의 영혼 신의 축복의 대한민국
전 세계 모범생 심금을 울리는 천사들
푸른 사랑 긍정의 힘 희망과 사랑이 용솟음친다



최임순

한국문인협회 문학연구위원 | 한국문인협회 양천지부 자문위원 | 한국문예작가회 부회장 사회자 문학평론가 |
중앙대학교 문인회 정회원 | 신사임당 문학 시 문예회원 | 한국시사랑 문학상, 한국시사랑 기행문학상, 한국문
인협회 양천지부 문학상,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한국문학대상, 국민행복 세종대왕 문화예술상 시낭송 대상 |
시집 『이름다운 미학이란』 『사랑의꽃 새롭게』 | 공저 《한국문예작가회》 《양천문학》 《중앙대문학 서울문단》 《신
사임당문학》 《낙동강문학상주》 《용산문학》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9호





■표지이야기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회지 통권29호

발행처/경상남도간호사회

발행인/남정자

발행일/2023년 12월 31일

편집위원장/이숙희

편집위원/고영숙, 김주애, 남호희, 박인숙, 심봉희, 윤소영

주소/창원시 성신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題字):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천사들의 환희 | 최임순

4 권두언 | 남정자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7 격려사 | 정순자 | 증경회장

경남간호 갤러리

8 서양화 | 최대식

경남간호인

10 공직 39년 현장의 달인으로, 간호사는 나의 천직 | 강선희



현장의 소리

14 어떤 말 | 김정남

17 평생 무료 고객 | 김민휘

20 중소병원 간호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 윤소영

24 통영시 건강지킴이 | 정향자



회원작품 맛보기

- 28 목공예 | 박달나무 도마 및 트레이 | 거창군간호사회
- 29 나전칠기 | 옷칠차반 | 통영시간호사회
- 30 시 | 우리들의 단상 | 김영란
- 31 수기 | 마음이 풍족해지고 따뜻해지는 봉사 | 김지현
- 32 수기 | 우리의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되길... | 조석련

또 다른 나의 삶

- 34 정년에 즈음한 나의 일상 | 공명숙
- 38 ALL IS WELL 괜찮아 모두 잘될 거야 | 김정화
- 40 정년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삶 | 김희

42 제32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50 '대국민 민트캠페인' 홍보활동 전개 | 이숙희
- 52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 심봉희

경상남도간호사회 이모저모

- 56 2023년 본회 주요소식
- 64 2023년 본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창원시간호사회 · 진주시간호사회 · 거제시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하동군간호사회 · 고성군간호사회 · 김해시간호사회 · 양산시간호사회
거창군간호사회 · 남해군간호사회 · 합천군간호사회 · 함안군간호사회
- 72 2023년 간호법 제정 활동
- 78 경상남도간호사회 기구표, 임원
- 79 본회 회장, 상임위원, 사무처,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 80 편집자 레터

백년헌신! 그리고 미래간호 100년의 첫걸음!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 지난 한 해의 결실을 마무리하며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간호계의 핫 이슈는 단연코 간호법에 대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으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17대 및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시도됐으며, 2021년 3월 25일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과정, 법사위 상정과 제2소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과정을 거쳐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현실에 함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애환과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뜻깊은 순간이었음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열망 하나로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17개 지부와 10개 산하단체가 한마음으로 마치 신체적, 정신적 인내의 한계를 통과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고지를 앞두고 있는 전사처럼 사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간호법을 이루어 내기 위해 수요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결의대회, 공청회, 토론회, 간호법 교육 및 특강, 지역 선전전, SNS 활동, 청원 및 간호법 100만 서명운동, 범국민운동본부와의 단체 연대활동, 민트 캠페인, 문화마당과 수요 한마당, 대통령에게 손편지 쓰기, 국회의원 방문, 단식, 기자회견, 준법투쟁 등 단계 단계마다 어느 한 과정도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무엇이? 이보다 더한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가능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

“ 새로운 미래 간호 100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2024년! 올해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 또한 결코 사라질 수도, 사라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온 저력의 불씨를 다시 피워서 간호법 제정의 불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

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고도 간호법에 대한 근거 없는 편향된 왜곡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2023년 5월 16일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동안의 우리들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위기에 내몰렸고, 2주 후 2023년 5월 30일에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됨에 따라 우리 간호사들은 울분과 비통함으로 뼈아픈 절망감에서 헤어나기 힘든 여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간호법이지만 우리는 함께 해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의 단결된 노력과 의지에서 간호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간호하는 장한 간호사다운 모습이었기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

2023년은 우리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가 창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0월 10일~13일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100주년 기념 간호사진전 개최를 시작으로, 전문간호사 한·미 학술대회, 간호법 국제세미나, 100주년 기념대회, 100주년 기념 간호사진전(서울 학교재아트센터),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 글로벌 널싱 국제학술세미나,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엄, 전담간호사 한·일 학술세미나,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년의 위대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간호사는 대한민국의 간호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더불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바 업무에 헌신하며 국민 건강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우리 간호사들이야말로 영웅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감당해 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험난한 것임을 우리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래 간호 100년은 간호법 속에서 간호사의 기본권리를 찾고 의료현실의 장벽을 낮추어 간호사가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간호환경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간호 100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2024년!

올해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 또한 결코 사라질 수도, 사라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현실적 여건들이 녹록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끌고 온 우리의 노력들을 여기서 멈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온 저력의 불씨를 다시 피워서 간호법 제정의 불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간호사회가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시작으로 우리 회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과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유관 기관들과의 교류 활성화, 봉사활동 확대 등으로 경상남도간호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좀 더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간호』 통권29호 회지 발간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고해 주신 이숙희 홍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자
경상남도간호사회
제21대 증경회장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창립 80주년이 되어갑니다. 1945년 시작한 경상남도간호사회가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로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힘겨운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대처하며 여전히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간호사들 역할도 확대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예순 나이에 새롭게 도전한 해외 봉사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캄보디아 포이펏에 있는 돈보스코학교 초·중·고 650여 명 학생들을 돌보는 봉사를 통해 지난 10년이 빨리 지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외 봉사를 하면서 세상을 많이 배웠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의료환경이 어려운 곳에 있는 학생에게 간호학 공부를 시켜 내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 전액 장학금도 후원했습니다.

2018년부터 후원금을 모아 2020년 간호대학에 한 명을 보내게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에 초청하여 후원자들도 만나고 감사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간호사회도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회원님들의 관심을 모아 선한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간호사들의 놀라운 면모를 통해 간호의 지평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추 52cm × 71cm



최대식 서양화가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창원대학교강사, 진해시 의회의원, 한국미술협회 진해지부장 역임 | 진해예술인상, 큰창원작가상,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경남미술인상 수상 | 현)문신미술상 운영위원, 진해예술촌장, 한국예총 진해지회장

●작가노트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혹독한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
며 봄이면 옷을 입고 가을이면 옷
을 벗는 자연의 섭리는 항상 자연
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
다. 그중에서도 유독 나는 설경
을 좋아한다, 순백의 자연을 바라
볼 때 경이롭기까지 한 그 감동을
수채화로 그려내고자 한다.
순간순간 포착된 설경의 매력은
나의 화지 위에서 재탄생될 것이
다. 자연으로부터 감동과 영감을
받아 자연을 그려내는 나의 작업
은 계속될 것이다.



4월의 노래 61cm × 95cm



설경 71cm × 52cm

공직 39년 현장의 달인으로, 간호사는 나의 천직

강선희 | 전김해시서서부보건소장



“ 이제 퇴직하고
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다.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건지?

늘 즐겁고 여유있는 프리랜서로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간호사로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소망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면서
행복한 간호사로 살아가려 한다. ”

간호직 공무원으로 39년

‘1985년 8월 21일 김해군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강선희’ 발령장을 받고 보건소를 향해 설레는 발걸음을 옮겨 본다. 간호사가 공무원?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저 보건소를 향하던 낯선 걸음이 어느새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장의 달인, 보건행정의 전문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공무원이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는 멋진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 생각하니 땡 하고 퇴근한 날이 얼마나 있었나 할 만큼 공직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임상간호사는 교대 근무

무에 따라 업무 인계만 하면 하루 일이 종료되지만, 공무수행은 늘 새로운 일을 만들고 시행하고 감사받고 끝없이 이어지는 특성에 따라 초창기 보건소 간호사는 끝없는 업무에 힘들어했다고 한다.

직책이 무슨 말인지 보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공직이었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6급(계장) 승진의 기회, 5급(과장) 승진의 기회와 어



려운 4급(소장)까지 기회가 주어졌다. 일이 좋아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상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물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의논하고 시작했지만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건 직원들에게 그다지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나 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은 설렘과 감동을

나는 간호사이면서 행정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행정 전문가는 행정만 할 수 있지만 간호와 행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언제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김해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였고 새로운 설렘과 감동, 보람을 안겨 주곤 했다.

위생과장(간호사로는 최초), 건강증진과장을 두루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 하였고, 그중에서 어르신을 위한 은빛 한마당 축제, 식품제조연합회 창립(전국 2번째), 건강증진 대축제, 건강도시 김해 선포식과 경남 최초로 19개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을 전면 배치할 수 있었던 일,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보건과 복지가 협업하여 김해시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일은 간호직 공무원과 김해시간호사회가 함께 한 덕분이었다. 새로운 일에도 망설임 없이 함께하자고 선뜻 나서는 후배 간호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간호사, 영원한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대한간호협회가 분회 창립을 독려하던 시점에 2009년 경남에서 3번째로 김해시간호사회를 창립하였고, 김해시가 공모하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을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3년 만에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이다.

김해시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 의료지원에 늘 간호사회가 함께하고 있었고, 김해시 의약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간호사회 MT를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회로 자리

매년 MT를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린다.
김해시간호사회의 단합 덕분에 나는 자랑스럽게 '보건소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매김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린다.

멋진 김해시간호사회의 단합 덕분에 나는 자랑스럽게 '보건소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2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법령 개정 이전 2개 보건소 운영 사례는 있으나 법령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2개 보건소를 승인받았고 2023년 1월부터 건강지원센터에서 서부보건소로 승격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3년 2월 20일 '간호사 보건소장 승진'으로 축제 분위기였던 김해시간호사회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퇴직을 몇 개월 남겨 놓고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고 도와주신 김해시간호사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늘 사랑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인연이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퇴임, 장학기금 500만 원 기탁

39년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2023년 6월 30일 아쉬움과 보람을 뒤로 한 채 39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직 생활을 마치면서 공무원의 가장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 공직 생활 39년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어울릴까? 어디나 그렇듯이 조직 생활이란 늘 녹록하지만은 않다. 상하,

좌우를 살피는 건 물론, 큰 틀에서 시민의 요구도, 시장님의 정책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게는 간호사 선후배와 보건소 직원의 도움과 크게는 김해시민과 시



장님 덕분에 늘 즐겁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39년 공직생활 중 큰 감동과 보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김해시간호사회 창립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다. 통합돌봄 시작 시점에서 경남 최초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19명 전면 배치와 보건복지 협업 전국 최초 통합돌봄 추진으로 시청 복지국에 간호직 1명을 배치하면서 간호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일들은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싶은 일이다.

이제 퇴직하고 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다.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지금도 충분히 재미있는데 뭘 하라고? 반문하면 그런 즐거움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으니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간호사라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퇴직 후에 건축현장 보건관리자로 잠시 근무했었다. 안전이 강화되면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보다 많은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고 나를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쉽게도 준공이 완료되면서 2번째 퇴직(?)을 했다.

지금은 간간히 강의와 소속된 심의위원회 참석, 학술대회와 포럼에 초대되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틈틈이 의료봉사, 그동안 소홀했던 종교생활 등 백수보다는 재택근무를 하는 듯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다. 어디에 소속되기보다는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지칭하면서 새해에는 간호대 학생 지역사회 실습 지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늘 즐겁고 여유있는 프리랜서로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간호사로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소망이 쪽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면서 행복한 간호사로 살아가려 한다. 함께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노력으로.

어떤 말

김경남 |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스승님 고맙심다..”

초겨울 슬리퍼에 양말도 없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환자분이었다. 그날도 그다음 날도 슬리퍼 사이로 나온 까만 발이 퇴근하고 나서도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난 추석 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양말 세트가 생각난 것은 다행이었다. 알록달록 줄무늬 양말을 챙겨 출근했다. 침대에 눕히고 필요한 처치를 마친 뒤 어떻게 말을 꺼낼까 더 좋은 말은 없을까. 몇 번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여쭙어보았다.

“아이고, 스승님 신의이소 말라고예... 스승님 고맙심다..”

그날 챙겨온 양말을 다 넣어드렸다. 그다음 날도 그다음 예약일에도 내가 드린 양말을 신고 몇 번을 더 내원하셨다. 그러다 그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셨다. 겨우 신규 간호사의 티를 면했을 시절,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길이 맞는지 생각했다. 간호사를 포기할 결심과 포기하지 않을 결심이 내 안에서 다

“ 어떤 말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가슴속에 살아 있다. ‘좋은 간호사와 ‘고맙다’ 사이에서 한참 고민했다. 다정한 말에도 힘이 있다. 날카로운 말보다 더 강한, 마치 고요한 바닷물이 백사장을 덮는 것처럼. 평생에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해 줄 요량이라면 기왕이면 다정한 말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투고 있었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책임간호사 선생님의 칭찬도 수간호사 선생님의 격려도 아니었다. 나의 간호를 받은 환자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좋은 간호사

대학생 시절 ‘간호학 개론’ 강의를 마치고 가시는 교수님께 목례했다. 그날 교수님께서서는 문득 나에게 말씀하셨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좋은 간호사 되세요.”

좋은 간호사라니, 어떤 게 좋은 간호사지? 아직 간호사 되려면 깜깜 멀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다 마치고 간호사가 되기는 할까? 일단 간호사가 되어야 좋은 간호사든 그냥 간호사든 할 수 있을 텐데. 간호사라는 직업에 확신이 없었던 그 시점부터 ‘좋은 간호사’라는 말은 나의 마음속에 콕 박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간호사일지 끊임없이 생각하였지만 아직도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다. 주사를 한번에 잘 성공하는 것이 좋은 간호사일까. 환자가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잘 케어할 수 있으면 좋은 간호사일까. 중한 병을 진단받고 혼란스러워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하면서 치료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간호사일까. 나라에서 감염병으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최전방으로 가는 것일까. 전혀 답을 내릴 수 없다. 좋은 간호사에 대한 고찰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에 나는 여전히 임상에 남아 있다.



니 말고 딴 간호사

“니는 왜 주사를 그렇게 아프게 놔노?(놓느냐?) 니 말고 딴 간호사 오라 해라.”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 환자분께서 역정을 내셨다. 스타트 주삿바늘이 좀 아프셨나 보다. 18G 큰 바늘이라 아프실 법도 하다. fail(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셨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다. 그냥 ‘나 죽었소’ 하고 ‘죄송하다’ 빨리 말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또 일이 밀린다. 실랑이할 겨를이 없다. 아무래도 잠잠해질 김새가 안보였다. ‘니가’ ‘내가’ 난무하는 필드. 어쩔 수 없이 데스크로 향했다. “선생님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바꿔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선생님 살려 주세요’.

그 후로 시간이 제법 지났다. 어떤 말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가슴속에 살아 있다. ‘좋은 간호사’와 ‘고맙다’ 사이에서 한참 고민했다. 환자니까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 딴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간호사니까, 아픈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이 좋은 간호사이지 않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매일 나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고자 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 사이에 섞여 환자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학생 간호사 등 촘촘하게 이어져 관계를 맺는다. 누구에게라도 날 선 마음보다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다정한 말에도 힘이 있다. 날카로운 말보다 더 강한, 마치 고요한 바닷물이 백사장을 덮는 것처럼, 평생에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해 줄 요량이라면 기왕이면 다정한 말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돌이켜 본다. 나의 말은 다정하게 전해졌을지, 어떤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을 한마디가 된 것은 아닐지, 혹은 포기하지 않을 힘이 되었는지.

오늘 선생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평생 무료 고객

김민휘 |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징징~ 징징~~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이 계속 울린다. 낮익은 병원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지 알 것 같다. 신경 쓰였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엄청난 음악 소리에 전화를 받아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수많은 사람을 헤집고 공연장을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결혼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성산아트홀에서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명해진 '포레스텔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다. 얼마 전에 수술한 환자의 장루 주머니가 자꾸 샌다는 문자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공연이라 설레며 왔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자를 확인하고는 초조한 마음에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1부 공연이 끝나고 잠깐 쉬는 틈을 이용해 병원으로 전화했다. 지금 사정을 설명하고 공연이 끝나는 대로 가겠다고 했다. 쉬는 날 저녁이었고 비싼 꽃값도 생각나고 이대로 공연 중간에 나오기 싫었다. 공연장에 앉아 있긴 했지만 공연 내내 마음이 찝찝했다. 환자의 예민한 캐릭터를 알기에 환자보다는 병동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지 신경 쓰였다.

30대 초반의 환자는 크론병으로 장루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균 감염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었다. 통증에 민감해 모든 처치가 조심스러웠다. 보호자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크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많이 안쓰러워하시는 분이였다. 병동 선생님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맞춰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병원으로 향했다. 공연장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었고 병원에서는



연신 문자가 왔다. 병동에 도착해 가운을 입으면서 혹여나 싫은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을까 표정을 살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이 마주친 환자는 “선생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김〇〇님 많이 힘드셨죠?”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에 손이 빨라졌다. 다행히 병동 선생님들이 변이 새어 나올 때마다 장루관을 빠르게 교체해 주셔서 피부가 상하지 않았다. 처치가 끝나고 환자는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고마워했다. 밤 11시, 병원을 나왔다.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환자의 깨끗한 피부가 나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 덜어주긴 했지만 내가 그냥 끝까지 공연을 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왔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장루를 가진 많은 환자를 간호하면서 환자가 느낄 불안감이나 불편감에 대해 무더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강의에서 한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났다.

“밤에 장루 주머니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밤잠을 설치요.” “원래 그래요.”

“냄새가 나서 밖에 나가기 꺼려져요.” “원래 그래요.”

같은 대답만 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반성했다는 얘기였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울음을 터트린 30대 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슴 한편이 찢려온다. 그분은 그 후로도 업무시간 외 호출이 몇 번 있었고 격리가 해제되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자유롭게 병실 밖으로 다닐 수 있게 되고 장루에 적응을 해가면서 표정이 밝아졌다. 그사이 그분과 나는 처치하는 동안 설 새 없이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다.

“ 김○○님은 손이 많이 가던 환자였지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함이 남아있는 환자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포레스텔라’ 공연을 관람하는 사이에 장루 환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를 찾았다. 그날, 나를 더 가치 있게 한 것은 공연이 아니라 환자의 호출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저는 바리스타인데 교수님이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진짜 난감하네요. 카페를 운영했어요?”

“네. 카페 하면서 바리스타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카페 여는 날이 오겠죠.”

“카페가 어디예요? 오르면 가봐야겠네요.”

“오세요. 커피 무료로 드릴게요.”

“저는 평생 무료로 해주세요. 하하하”

그렇게 나는 언제 오픈할지 모를 카페의 평생 무료 고객이 되었다. 퇴원 후 외래에서 몇 번 더 처치를 해드리고 시간이 좀 흘렀다.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기존 장루관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나를 찾았다. 오랜만에 본 환자는 살이 많이 올라 훨씬 건강해 보였다. 처치하는 동안 둘의 수다가 또 시작됐다.

김○○님은 손이 많이 가던 환자였지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함이 남아있는 환자다. “많이 힘드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어서 괜찮아져요.” 녹음기를 틀 듯이 환자들에게 설명하던 나를 반성하게 만든 특별한 환자였다. 환자들의 힘들음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공감하려 애써본다.

나는 오랜만에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포레스텔라’ 공연을 관람했다. 그 사이에 장루 환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를 찾았다. 그날, 나를 더 가치 있게 한 것은 공연이 아니라 환자의 호출이 아니었을까. ‘특별하다’는 말은 특별한 순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평생 무료로 커피를 제공해 주겠다는 환자의 말로 ‘Special Nurse’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중소병원 간호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윤소영 | 메트로병원 간호과장

중소병원의 현재 상황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전체나 일부 병동을 음압병동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복지부에서도 중소병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감염병이 안정된 현재에는 복지부의 외면 속에 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 중이며 올해는 야간근무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이다. 야간근무 조건을 맞추려 하면 그 만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에도 중소병원에서는 3교대 간호사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야간 전담간호사는 더욱더 찾기 힘든 상황을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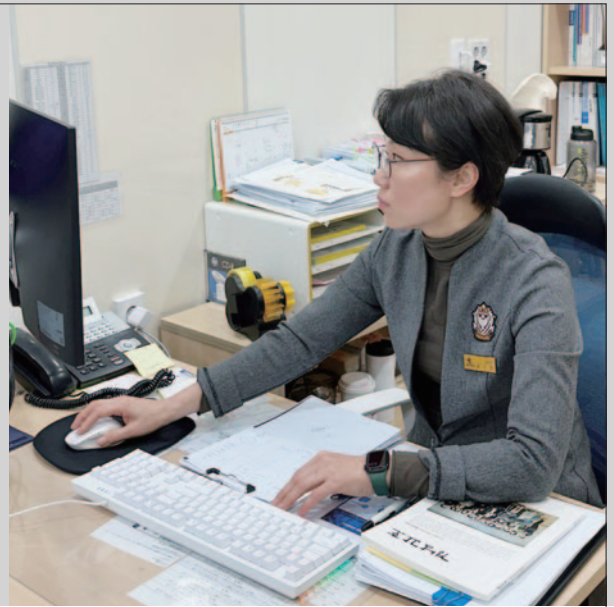
나의 병원일기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중소병원의 장점만 적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일반직원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 자신이 어떻게 좋은 글을 시작할지 고민이 많았다.

나는 중소병원에 일한 지 16년차 간호사이다. 종합병원에 일할 때는 이 정도의 인력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아마도 스태프 위치라서 인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종합병원에서 11년 일한 후 이직을 하게 되었다. 개원하는 중소병원이라 면접을 보고 그 힘들다는

“중소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중소병원 간호사도 행복해지고 싶다. 모든 현장의 간호사들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이 환자들에게 에너지로 전달되어 더 좋은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신생병원에 입사를 하였다. 단지 내가 사는 집 앞에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입사했는데 정말로 1년은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었다.

밥 못 먹고 일한다고 간식 먹을거리 사주시는 상사님, 근처 지나가다가 간식 한바구니 시크하게 주고 가시는 원장님, 회진할 때 커피 사먹으라고 카드 주시고 가시는 원장님, 때때로 전 직원 점심으로 아웃백 도시락 세트와 피자를 돌리시는 원장님들 때문에 소소히 재미지게 일하였다.

체육대회, 등산 단합회, 워크숍 1박2일, 부서별 2박3일 여행, 야구 관람 등 끊임없이 직원들과 소통 하시려는 원장님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던 것 같다.

중소병원이지만 임금이 적지 않았으며 버는 만큼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는 원장님들 때문에 이직 잘 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가 느는 만큼 간호사 수는 따라가질 못했다. 힘들다고 소문난 병원에 누가 지원을 할까? 경력직 간호사도 어떨 때는 버티기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고, 관절 척추특화 병원인 만큼 다양한 수술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새로운 공부 연속이고, 매일 이 인력으로 일하는 나 자신은 로봇 간호사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날도 있었다.

동트기 전에 출근해서 해지고 퇴근하는 날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의 나쁜 감정을 실은 말들이 저절로 올라오기도 하였다.

병원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며 임금이 올리고, 여러 가지 수당 및 복지정책을 늘려가고, 간호 등급제 상향으로 간호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니 숨통이 트이듯이 간호사 수와 간호 업무도 안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도 경영진과 어느 정도 생각이 맞고 여건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지 지속

적으로 임금만 올려 달라고 경영진에게 보낼 수 없지 않을까.

중소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집 앞에서 지켜주는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곳이다. 중소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상급 종합병원이든 국민들에게 같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된 중소병원의 문제점

이렇듯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원인은 최근 2~3년간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급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병상을 대폭 늘리면서 시작되었다 하는데, 이는 2007년 4월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 이후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경영 여건이 좋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서 중소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간호사 인력 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한 요양병원 역시 간호인력 부족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간호사 수요는 증가하나 활동간호사는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방지해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2023년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하였다. 그중 일부에서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위해 ‘재정지원+대기 간호사 근절’ 추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 후 2025년 채용부터 적용을 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외당으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호소문

중소병원은 큰집인 종합병원에 가려진 둘째, 셋째 자식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집 앞에서 지켜주는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곳이다. 서울 및 수도권권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현상이 노골화돼 지역 중소병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간호업무는 과중하고 힘들고 처우까지 낮다는 인식이 팽배해 간호사를 구하지도 못하는 병원도 많다. 구인 사이트에 간호사를 구한다는 곳은 많은 반면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소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상급 종합병원이든 국민들에게 같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중소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는 정말 중소병원 간호사도 행복해지고 싶다. 이제는 정말 모든 현장의 간호사들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이 환자들에게 에너지로 전달되어 더 좋은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통영시 건강지킴이

정향자 | 통영시 추봉보건진료소장



통영시 건강지킴이 4개 섬 주민의 간호사

“집집마다 방문해 딸 역할도 하고 며느리 역할도 하고, 진료도 보고 어르신들 행정 업무도 돌봐드리고 일인다역으로 살았죠.”

30년의 보건진료소 근무 기간 중 22년 동안 경남 통영시의 4개 섬을 돌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은 단순한 이웃 이상이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대학 재학 중 지원한 공중보건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1994년 통영 노대보건진료소에 첫 부임을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간호대학 재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최대 3년) 의무 근무를 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새내기 간호사인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통영 노대도의 모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장이 됐다.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도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연고도 없는 오지에서 ‘젊은 여자 소장’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꼭꼭 숨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1인 근무 체제인 보건

“ 1인 근무 체제인 보건진료소에서 밤낮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모두 혼자 돌봐야 했다. 섬 어디든 언제든 진료가 필요한 곳에 주저 없이 달려가는 모습에 주민들도 마음을 열었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던 날 섬마을에 남기로 결심했다. 병원에 가기 힘든 곳에서, 다치거나 아픈 분들이 보건진료소에 오셔서 회복되고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여기만큼 내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료소에서 밤낮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모두 혼자 돌봐야 했다. 야간에 술을 마시고 다친 사람이나 새벽에 가정폭력으로 부상한 주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다. 섬 어디든 언제든 진료가 필요한 곳에 주저 없이 달려가는 모습에 주민들도 마음을 열었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던 날 섬마을에 남기로 결심했다. 병원에 가기 힘든 곳에서, 다치거나 아픈 분들이 보건진료소에 오셔서 회복되고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여기만큼 내가 필요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굳게 먹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 근무는 쉽지 않았다. 22년간 노대, 학림, 곤리, 추봉 4개의 섬 지역에서 일했다. 섬에 태풍이 오면 비상이다. 태풍으로 쓰러진 담벼락에 깔려 주민이 대퇴골 골절을 입은 적이 있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밤 무너진 집에서 부상자를 구조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밤새 간호했던 경험은 아찔한 기억이다. 폐암으로 호흡 곤란이 와 사망 직전까지 간 어르신에게 통영까지 배 타고 가는 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살려낸 기억도 있다. 힘든 근무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주민들과의 유대감이었다. 학림보건진료소를 떠날 때 온 주민이 바리바리 선물을 싸 들고 나와 '눈물바다' 이별식을 했다.

나의 뜻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가족들 덕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배편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들을 볼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다리가 아픈 자녀의 수술실을 지키고 온갖 집안 살림을 챙긴 남편의 '외조'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힘든 근무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주민들과의 유대감이었다. 학림보건진료소를 떠날 때 온 주민이 바리 바리 선물을 싸들고 나와 ‘눈물바다’ 이별식을 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대우재단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의료인들에게 시상하는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보건진료소 개소 운동에 동참, 진료소 복원을 위해 노력

앞으로도 취약지역 의료 붕괴의 현실을 알리고 환자들과 후배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 하려 노력할 것이다.

30년 전과 비교해, 환자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도서 벽지 지역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직도 빠른 처치가 힘들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0년 통영 용호·안정보건진료소에 폐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도미노처럼 쓰 러지는 취약지역 보건진료소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보건진료소 부지를 기부채납한 주민들과 함께 개 소 운동에 동참하여 진료소 복원을 위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생생하게 뇌리를 스친다.

취약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후배 의료인들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힘이 되 고 싶다.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 선정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대우재단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의료인들에게 시상하는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일이다. 누가 나에게 수상소감을 묻는다면 이 모든 것은 '선배 의료인들 덕'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시작하신 선배들 덕분에 보건진료소 의료환경도 많이 나아졌다. 그분들의 열정과 에너지 덕분에 따라 힘을 낼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우중 의료인상

故 김우중 대우 회장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대우재단은 1979년 첫 사업으로 의료시설이 없던 신안, 무주, 진도, 완도에 병의원을 세우고 도서 오지 의료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도서 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12월 9일에 발표된다. 오늘날에도 그늘진 곳의 소외된 이웃에게 묵묵히 인술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에게 수상한다.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전파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하면서 통영 미래의 희망인 인재육성을 위해 통영시에 인재육성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에 천영기 통영시장은 “김우중 의료인상을 축하드리며, 지역인재육성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거창군간호사회
〈박달나무 도마 및 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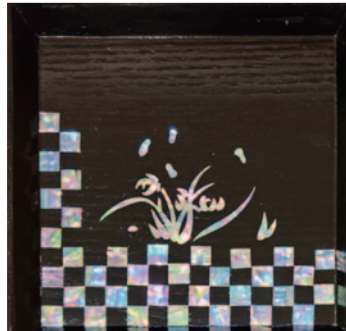
거창군간호사회는 2023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마와 트레이 쟁반 만들기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고 목공예 체험에 대한 특별한 경험 및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통영시간호사회 <웃칠차반(나전칠기)>

경상남도간호사회 및 통영시간호사회 회원 50명은 2023년 10월 20일 2회에 걸쳐 본회의 임원 및 회원들의 역량증진과 사기진작 그리고 회원들 간의 상호교류와 치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웃칠차반을 만드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들의 단상

흩어진 시간* 들이 싸늘한바람**에 모여 소리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상 위 후둑 후둑 떨어져 내리는 은빛의 무게
순한순백의 대열에서 전해져 오는 흐느낌

이제는 밝은 빛으로
이제는 희망 빛으로

순백에 드리운 어두움을 걷어낸다



김영란
큰바다요양병원 간호부장



* 간호법 없이 지나온 시간

** 기저뉴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2022. 11. 21./ 국회 앞 의사당대로)

마음이 풍족해지고 따뜻해지는 봉사

김지현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어느날 병원 게시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다.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혼자 가기는 망설여지는 전형적인 MBTI “I” 성격인 한 사람으로서 며칠 고민하던 중 다행히 같은 부서 선생님과 팀장님의 동참으로 함께 다녀올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실 병동에서 그들을 마주했을 때는 난감한 상황이 많았다. 당뇨합병증으로 손발이 썩어가고 있지만 당뇨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환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환자도 있다. 이런 나쁜 CASE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검진을 시행한다는 것이 이번 봉사활동의 취지였고 뜻깊은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 가기 전부터 기대감에 부풀었다.

봉사활동 사전 모임을 가진 날, 생각보다 많은 병원 직원들이 다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안과·치과·순환기내과·산부인과 등 여러 과들이 동참해 주셨고 혈당측정, 혈압측정, 시력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있었다. 그중에서 나는 혈당측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봉사 당일 새벽부터 눈이 저절로 뜨이고 모이기로 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세팅되어 있는 기구를 점검하고 자리에 앉아있으니 괜히 내가 한국 간호사를 대표하여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기억을 했던 것인지 금방 편안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냥 간단한 혈당측정일 뿐인데 그분들은 내가 해주는 검사가 마치 큰 검사인 것만양 내 행동 하나하나에 눈빛을 반짝이며 쳐다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 나에게는 그냥 한번쯤 해볼까 라고, 쉽게 생각했던 일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 감동이 되었다.

그냥 며칠, 몇 달, 몇 년 후에 기억도 나지 않고 평범히 지나갈 수도 있었던 2023년 9월 10일이 언제나 기억에 남는 특별한 2023년 9월 10일이 된 것 같다. 마음이 풍족해지고 따뜻해지는 봉사활동이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되길...

조석련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수간호사

코로나로 많은 대면 활동이 제한되어 오다 2023년 봄 코로나 환자가 줄면서 우리 간호사회에서도 대면 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작은 맘이라도 보태어 봉사하겠다는 뜻을 가진 간호사들의 맘을 대신하는 ‘온맘’으로 봉사대 이름을 정하여 몇 차례 준비 회의를 가졌고, 업무 추진력과 행동이 빠르신 봉사대장님을 중심으로 제1회 봉사 일정을 진행하였다.

사람의 눈은 한정 없이 게으르고 손과 발은 부지런하다는 옛말처럼 토요일 오후 낮선 주소를 네비에 치고 집을 나서는 맘은 무겁고 망설여졌다. 처음 방문하는 풀잎마을에 대해 미리 검색을 하여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가서 도와줄 것은 어떤 것일지 전해 들긴 했지만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았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봉사장소에 도착하여 봉사대 조끼를 입으며 무겁던 맘은 사라지고 코로나로 중단된 산책을 기다리는 아이 같은 눈빛을 가진 풀잎마을 가족원들을 보니 저절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산책이라는 작은 이벤트에도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맘껏 세상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화려한 사치인 듯한 착각도 들었다.



풀잎마을 가족원들과 주변 풍경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양곡소공원까지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하고 계곡과 팔각정을 산책하며 막바지 여름의 공기와 자연을 맘껏 즐겼다. 나이와 다른 어린아이 시선으로 표현하고 웃는 풀잎 가족원들을 보며 작은 산책으로도 충분히 힐링을 도와줄 수 있어서 함께 한 맘이 더 즐거웠다.

풀잎마을 가족원들과 주변 풍경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양곡소공원까지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하고 계곡과 팔각정을 산책하며 막바지 여름의 공기와 자연을 맘껏 즐겼다.



산책 후 안전하게 돌아왔고 아쉬워하는 풀잎 가족원들을 보면서 병원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와는 다른 애뜻함이 생겼고 함께 휠체어를 이끌고 밀며 땀 흘린 다른 동료에게도 다음 봉사에도 참가해서 얼굴 보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고 웃을 수 있었던 간호부장님 이하 봉사 참여자 분들께도 감사하고, 작은 보탬이나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길 하나, 작은 땀방울 하나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되길 바라며 온맘봉사대 첫 봉사 이어 다음 봉사 때 웃으며 풀잎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년에 즈음한 나의 일상

공명숙 | 전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38년 4개월 가까운 병원근무를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공로연수가 주어졌다. 앞서간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보너스와 함께 주어지는 6개월의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나름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출근을 안 하니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하다, 갑자기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등을 느낄 겨를도 없이 7월 초부터 그동안 근무의 긴장감으로 버텼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안과로 치과로 한 달을 넘게 그렇게 보내고 8월부터 휴가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했다.

먼저 여러 가지 핑계로 부족했던 아내 역할, 엄마 역할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소홀했는지, 불평 없이 나를 지지해 준 남편이 고맙고, 그럼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해보는 전업주부 역할, 나름 재미있기까지 하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기만 했던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고자 맘을 먹고, 먼저 6년 가까이 살고있는 아파트 주변을 한여름 땀방울이 따라워 해질녘에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유난히 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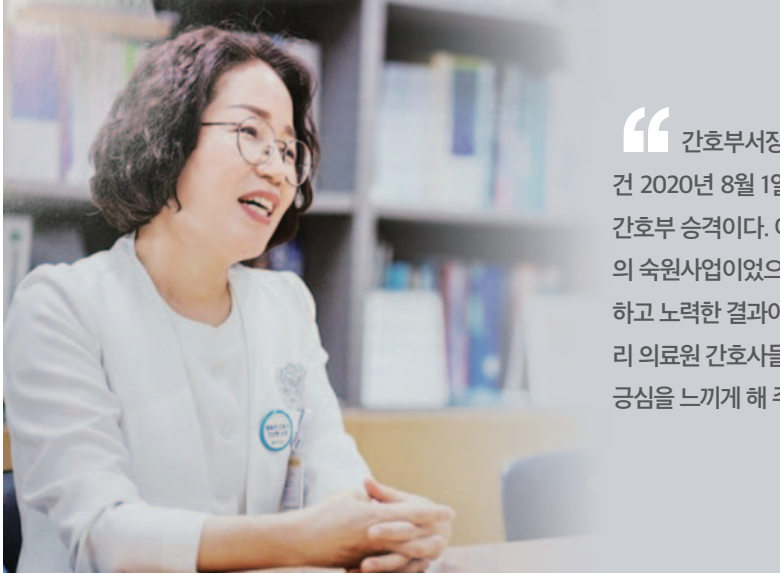
많았던 올여름 비가 오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다 비가 그치면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들도 구경하고, 아파트 사이로 흐르는 개울엔 장마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살도 제법 쉰다. 물놀이하는 아이들, 더운 날씨가긴 하지만 해질녘 운동을 하는 이웃주민들 사이에 나도 슬쩍 스며들어 보았다. 한쪽에선 동네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공사중이었다. 완공되면 꼭 와 봐야지. 또 8월부터는 그동안 생각만 있었지 미루고 하지 못했던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건강부터 먼저 챙기기로 하고, 덤으로 몸매도 챙기고,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기초반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가끔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넷플릭스에 빠져보기도 한다.

가끔 병원에 들리면 동료들이 얼굴도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고 부럽다고들 한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다. 실제로 그러니까!

9월에는 3명의 시누이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다. 그것도 남들 일하는 주중에, 알뜰한 경비로... 근무 중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맘껏 누리지 못했던 일들이다. 버스에는 한국에서 모인 6개 팀이 함께 여행을 즐겼다. 일행 중에는 시누이들과의 여행이라니? 우리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행 멤버라며 의아해했다. 너무 재미있는 멤버인데, 앞으로 자주 다니자고 의견도 모았다.

마산의료원, 1985년 3월 동기생 1명과 마산의료원에 한가족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열악했던 공공병원이었기에 새내기 간호사의 설렘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전에 출근 2일 차부터 바로 근무에 투입되면서 38년 9개월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다. 처음 5년간은 후배들이 없어 막내로서 귀여움과 선배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한 해 두 해 경력을 쌓았고, 정년을 앞둔 지금은 간호부의 부서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내가 받았던 선배들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긴 기간 이자까지 합쳐 잘 돌려주고 왔는지 되돌아봐진다.





“ 간호부서장으로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2020년 8월 1일 병원이사회 통과로 이루어진 간호부 승격이다. 이는 우리 간호사들의 오랜기간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간호부 승격은 우리 의료원 간호사들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무기간 동안 너무나 쫓겨잡는 일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의 병원 휴업이 있었고, 의약분업, 사스, 메르스, 병원신축과 이전, 간호부 승격, 마지막 코로나19까지... 그 중에서도 간호부서장으로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2020년 8월 1일 병원이사회 통과로 이루어진 간호부 승격이다. 이는 우리 간호사들의 오랜 기간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간호부 승격은 우리 의료원 간호사들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의료원을 거쳐 간 선배님들과 나를 믿고 따라준 후배들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정년을 2주정도 앞둔 지금 이제는 그동안 책임감과 긴장감으로 보냈던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며 인생 2막을 시작함에 있어 조금은 느리게 천천히 내 마음속의 바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39년 가까이 해보지 못한 또 다른 나의 삶이기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스트레스받지 않고 즐겁게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

지난 6개월은 의료원 직원 신분으로 휴가를 즐겼다면 24년 1월부터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쉬



는 느낌은 어떤지 느껴보고자 한다. 앞으로 얼마 동안 무소속으로 있을지, 언젠가는 또 어느 소속으로 입당하겠지만 그때까진 무소속의 즐거움을 맘껏 누리기로 해본다.

‘기억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또한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병원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미움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후배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본다. 나 또한 우리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의료원 밖에서의 인생에 힘차게 다시 도전을 해볼까 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긴 세월동안 선배로 부서장으로 믿고 따라준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마산의료원 간호사로 이렇게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린다.

ALL IS WELL 관찮아 모두 잘될 거야

김정화 | 전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1985년 9월 밀양군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한눈팔지 않고 밀양시보건소를 지켰다.

23세의 통통 튀는 캔디 같았던 신입은 퇴직을 앞둔 초로의 선배가 되었다. 특히 밀양시 코로나19 대응에 단단한 기반과 조직 운영,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등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2022년 12월 밀양시보건소 설립 이래 최초로 여성이며 간호사 출신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37년 공무원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는 동료의 격려와 도움 덕분이었다.





나는 영원한 보건소 사람이다.

20대부터 보건소를 지켜온 전 팬으로 힘들 때마다 보건소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며 늘 보건소
김정화로 당당하고 반짝일 수 있도록 보건소가 다 받아 주었던 것 같다.

이제부터 버터내느라 애썼던 나를 사랑하고 친해지려고 한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가보기, 어학연수 가기, 루틴 만들기(운동, 독서 등) 그리고 어디에 있던 내가 가
진 열정, 역량,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건소가 원 팀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나의 최애 작가 류시화님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 여행을 방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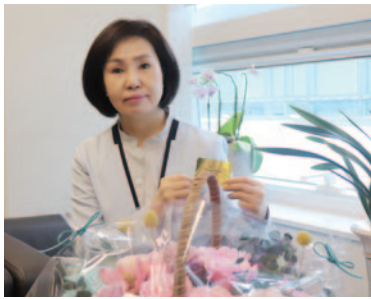
과거는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입니다.

버려야 한다. 그다음에 오는 자유는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삶

김희 | 진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간호부장 재임 후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하고 2024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김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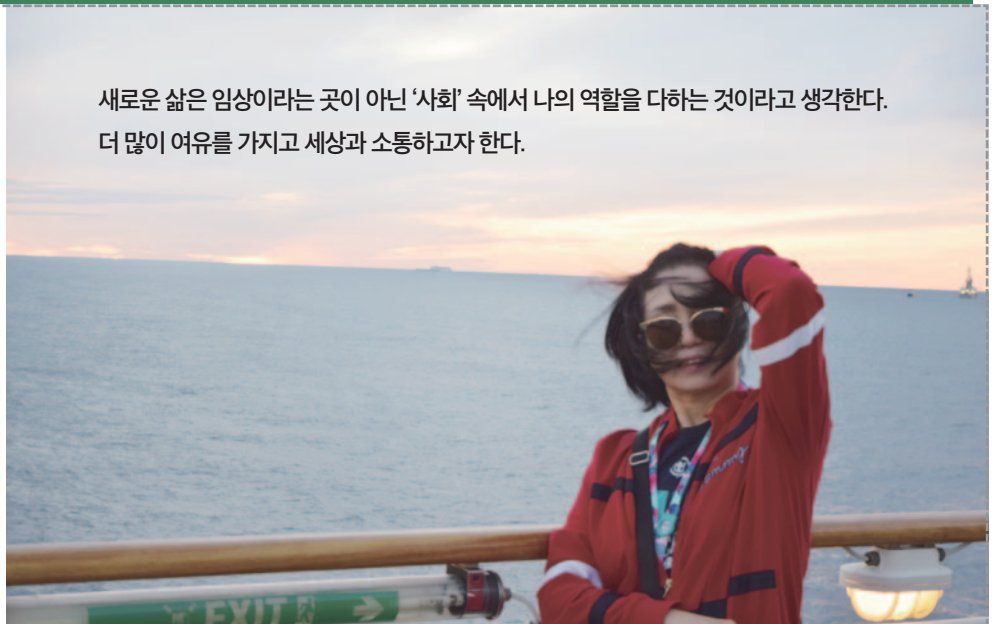
간호사로 임상에서 34년을 재직하고 정년을 하기 전, 공로 연수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퇴직하고 내가 준비할 일, 퇴직하고 내가 할 일을 정리하게 되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죠!!

1. 말수 줄이기 : 즉 간섭하지 않기 2. 비교하지 말기 : 나는 현재, 과거, 어떠한 식으로 지인을 비교하지 않기 3. 여유 갖기 : 나를 인정해 주기, 노년의 꿈을 가져라 4. 시간 때우기 안된다 :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5. 스스로 재미, 흥미를 만들어라 : 즉 친구 찾기, 동아리 이용하는 방법 등 6. 재산 지키기 : 투자하지 않기 7. 자신 개발하기 : 계획표 적기, 일/주/월 목표 있어야 한다 등등...

정말 새로운 세계, 다양한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세상을 모른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버킷리스트에서처럼 ‘자신 개발하기’, ‘흥미를 만들어라’를 먼저 찾기로 하였다.

첫째로 34년 임상에서 몸에 배어 있는 초조, 긴장감을 떨치기보다 즐기기 위해 필라테스, 등산, 골프를 기본으로 하여 꼭 필요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고 듣는 연습을 하였다. 자연스럽게 말수를 줄이게 되었다. 골프는 남편을 좀 더 챙겨보고 자 하는 배려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같이할 수 있는 활동이라 조금씩 시간을 가져보고 있다.



새로운 삶은 임상이라는 곳이 아닌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둘째로 평생교육원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경험하고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셋째로 여행을 계획하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다녀오게 되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이번 여행이 진짜이고 생각을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은 임상 현장을 떠난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는 것이다.

1988년부터 퇴직 전까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중환자실, 병동, 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지역사회, 환자 간호업무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0년 간호부장 취임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및 선별진료소 운영, 유행성 감염병 간호에 앞장서며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롤모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다. 간호협회의 회원으로서 간호사 교육에도 참여하면서 회원들과 관계도 구축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2024년 1월 퇴직을 하면서 나에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삶은 임상이라는 곳이 아닌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간호사 여러분! 대서양 태양의 기운을 전하면서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32회 학술발표회



제52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2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을 2023년 9월 20일 경상남도간호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주최로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하영미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발표자 및 공동연구자, 교육위원, 임원, 회원 등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경험과 재직의도 영향요인: 혼합연구

심은성¹⁾ 김수현¹⁾ 이지란¹⁾ 하영미²⁾

¹⁾경상국립대학교병원 ²⁾경상국립대학교

심은성(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석사) 김수현(경상국립대학교 보건관리학석사)

이지란(경상국립대학교 산업심리석사)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K-방역'이라는 성과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성과의 주역 중 하나로 일선 현장 간호사를 꼽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3년간 지속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부족현상이 야기되었으며, 결국 간호사의 삶의 질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COVID-19 기간 동안 병원에 근무하면서 재직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된 실제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의 변화에 대한 경험 및 재직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질적, 양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통합한 동시 혼합연구 설계를 이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COVID-19 기간동안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고, 일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환자를 직간접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서 감염전담병동, 중환자실, 선별진료소 등 특수파트에서 근무한 자와 내외과 병동단위에서 COVID-19 환자의 직·간접간호 경험한 간호사 둘째, 혼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로 하였다. 대상자 제외기준은 직무만족 관련 선행연구를 근거로 임상경력 6개월 미만의 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α) = .05, 중간 효과크기 = .15, 검정력($1-\beta$) = .80, 예측요인 9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14명이었다. 특수파트 단위와 내외과 병동단위에서 각각 대상자를 표집하였고, 설문지는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특수파트 단위에서 130명, 내외과 일반 병동 단위에서 130명씩 총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양적연구에서 연구도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재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소진, 극복력, 직무만족,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질적연구에서 개방형 질문

COVID-19 기간동안 간호사의 직무 경험과 재직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질적·양적 설문조사는 2022년 IRB 승인 이후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진은 병동단위별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간호사들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1) 양적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양적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COVID-19 간호 경험 특성은 빈도, 백분

<p>연구방법</p>	<p>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소진, 극복력, 간호근로환경, 직무만족, 재직의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COVID-19 간호경험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넷째, 직무 스트레스, 소진, 극복력, 간호근로환경, 직무만족, 재직의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p> <p>2) 질적 자료분석</p> <p>질적 자료분석은 Elo와 Kyngas(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p>
<p>연구결과</p>	<p>참가자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극복력, 직무만족, 간호근로환경, 재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3.01±0.51점, 소진 3.69±1.12점, 극복력 3.65±0.49점, 직무만족 3.30±0.52점, 간호근로환경 2.40±0.50점, 재직의도 4.81±1.64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재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r=-.02, p=.757$), 소진($r=-.25, p<.000$), 극복력($r=.27, p<.000$), 직무만족($r=.45, p<.000$), 간호근로환경($r=.27, p<.00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 ($\beta=.14, p=.041$), 근로환경 만족도 ($\beta=.14, p=.000$), 코로나19 관련 업무분장 만족도 ($\beta=.16, p=.003$), 소진 ($\beta=-.22, p=.007$)으로 나타났다.</p>
<p>결론</p>	<p>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p> <p>첫째,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병원간호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전체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p> <p>둘째, 본 연구결과 근로환경 만족도, COVID-19 관련 업무분장 만족도, 소진이 직무만족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 소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 있는 실제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한다.</p>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정신건강간호사의 지지가 자가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재운¹⁾ 권경순¹⁾

¹⁾국립부곡병원

이재운(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 권경순(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연구목적

정신질환은 현실적 판단력 장애, 정서표현의 결핍 및 다양한 행동장애 등으로 잦은 재발과 함께 만성화로 이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일상생활과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가간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지각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정신건강간호사의 지지가 자가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추후 정신질환자의 자가간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립B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고, 연구대상자는 영남권 소재 3개의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165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역량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정신건강간호사의 지지 및 자가간호역량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고, 자가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p>연구결과</p>	<p>본 연구에서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정신질환자의 자가간호역량은 관계성($r=.70, p<.001$), 유능성($r=.68, p<.001$), 자율성($r=.43, p<.001$) 및 정신건강간호사의 지지($r=.61, p<.001$)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신질환자의 자가간호역량은 관계성($\beta=-.47, p<.001$), 유능성($\beta=-.47, p<.001$), 정신건강간호사의 지지($\beta=-.47, p<.001$) 및 자율성($\beta=-.47, p<.001$)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의한 설명력은 61.9%($F=67.52, p<.001$)였다.</p>
<p>결론</p>	<p>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기능 유지 및 증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가간호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사회환경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p> <p>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자가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의 관계성, 유능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신간호 실무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자가간호역량 강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p>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수준과 직무스트레스가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윤경¹⁾ 이수희¹⁾ 정혜영¹⁾ 유미²⁾

¹⁾경상국립대학교병원 ²⁾경상국립대학교

구윤경(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석사) 이수희(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석사)

정혜영(경상국립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연구목적

상급종합병원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수준과 직무스트레스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직무스트레스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서술적 조사연구
- 2) 연구대상: J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 중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간호보조요원,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지원직(이송요원)인 자(196명)
-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 환자안전문화인식: 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도구를 김정은 등(2007)이 번안한 도구 42문항.
 - 직무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24문항.

연구결과

- 환자안전관리활동: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4) 항목을 토대로 정면숙(2017)이 개발한 22문항의 도구.
-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정도에서 환자안전문화인식은 평균 3.46점,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91점,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평균 4.34점이었음.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22, p=.027$), 근무직종($F=2.81, p=.041$), 1년 동안 환자안전교육경험여부($t=-2.36,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r=.37, p<.001$)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r=-.24, p=.001$)와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높은 부적상관($r=-.78, p<.001$)이 있었음.
- 근무직종별로는 직무스트레스와 환자안전관리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보조요원이 의료기술직보다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F=7.04, p<.001$), 간호사가 간호지원직보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F=2.80, p=.041$).
-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beta=.45, p<.001$)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beta=-.24, p=.001$), 1년 동안 환자안전교육경험($\beta=.16, p=.024$) 순이었음.

결론

- 본 연구는 간호사 뿐 아니라 병원 전 직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연구로, 상급종합병원의 다양한 의료종사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와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을 확인한 점에 연구의의가 있음.
-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교육경험이 있을수록 증가되며,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병원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및 부서차원에서는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관리방안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캠페인이나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대국민 민트캠페인' 홍보활동 전개

이숙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대한간호협회는 4월 한 달간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min'T) 캠페인을 펼치며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트(min'T) 캠페인은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트다(민+트)'는 의미로, 간호법이 존엄·맞춤·안심을 위한 부모돌봄을 담고 있는 '부모돌봄법'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시도간호사회(서울, 부산, 인천, 경남, 전남, 충북, 충남, 대전, 강원, 경기)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성을 알리는 한편, 민트천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에서는 2023년 4월 7일 창원중앙역에서 경남도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대국민 민트(min'T) 캠페인을 실시하여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남정자 회장은 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간호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의 ‘부모돌봄’은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한 ‘맞춤돌봄’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역사 내·외 함양군 수박축제 등에서 민트캠페인의 목적을 도민들에게 설명하였다. 민트캠페인 홍보 부스에는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배너를 설치하고 민트색을 활용한 복장으로 간호법 홍보 전단지과 다양한 민트색 물품들을 나눠주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차량 부착용 홍보스티커를 4천여 개 제작해 배포하였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임원 차량에 민트색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시각적 홍보 효과를 높였다.

한편 이번 민트캠페인 일환으로 간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민트(min)T’천사 챌린지를 온라인에서 진행하였다. 민트천사란, 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지칭하며, ‘간호법 제정’과 ‘부모돌봄법’ 글귀를 적은 민트색 손파켓 또는 본인이 소지한 민트색 물품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챌린지다.

민트캠페인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전개해 간호법의 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며, 간호돌봄을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심봉희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지난 2023년 9월 9일~9월 16일까지 경상남도간호사회 장학후원회에서는 장학생 라닛과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에서 후원하는 장학생 리혜잉을 함께 한국으로 초청했다. 라닛은 캄보디아의 포이펫 돈보스코학교를 거쳐 프놈펜 국제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했으며, 올해 12월 졸업할 예정이다. 이미 졸업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에 모두 합격한 상태이다.

이들을 양육한 캄보디아의 포이펫 돈보스코학교는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603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돈보스코학교는 정부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한 자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교 운영비를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다. 후원금이 끊기면 가난한 아이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들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돈보스코학교에서 교육을 무사히 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간호사로서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소식이 포이펫 사회에 미칠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경상남도간호사회 장학후원회의 행보는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다. 그들에게 단지 물질적인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캄보디아에서 온 라닛의 편지를 소개한다.



●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협회 활동을 소개 받으면서 간호사의 삶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롯입니다. 24살 캄보디아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2부터 고3까지 포이펫 돈보스코 학교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프놈펜(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해 4학년 진학하기 전 프놈펜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을 방문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생애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일을 마친 후 공항에서 신부님, 리혜잉을 만나 흥분된 마음으로 한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 한국 살레시오 수도회 본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돈보스코 성인 동상을 봤는데 포이펫 학교에 있는 동상과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후식으로 복잡하고 큰 도로 위를 달리는 많은 자동차를 보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하고 거대한 양의 책, 수많은 사람 등 도서관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포이펫학교 의료 봉사자인 박현중 선생님을 만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박현중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둘째 날, 광명시에 있는 하안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분이 저희를 친근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환대에 행복했습니다. 미사 후 점심밥을 먹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경복궁을 구경나온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저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거리를 걷고 쇼핑을 했습니다.

셋째 날, KTX를 타고 부산을 갔습니다. 작고 느린 캄보디아 기차에 비하면 KTX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호텔 체크인을 하고 골롬바(전 정순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선생님과 세 분의 후원자와 함께 해운대 미포블루라인으로 가서 스카이 캡슐을 탔습니다. 바다 풍경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해운대 해변을 거닐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넷째 날,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의사, 친구로 아프리카 친구들과 사신 이야기를 들으니 신부님이 수퍼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다니 슬펍습니다. 오후에 경상남도간호사회를 찾아갔습니다. 따뜻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협회 활동을 소개 받으면서 간호사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신 대표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섯째 날, 소록도 마리안느 앤 마가렛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과 소록도 병원을 둘러보면서 두 수녀님이 나환자와 함께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과 교보문고를 구경하고 잠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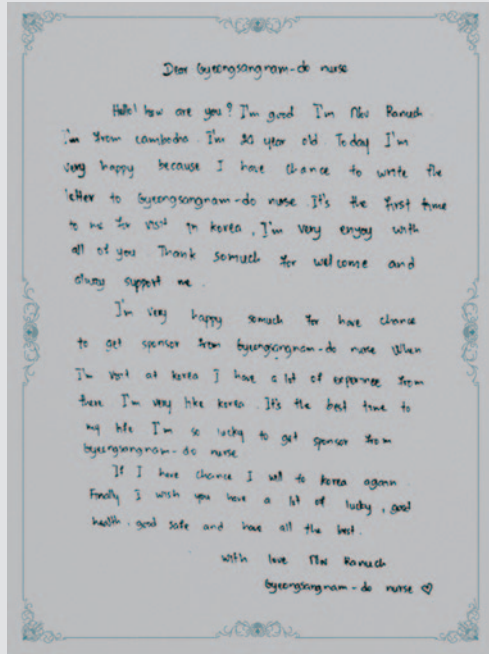
일곱째 날, 중앙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앙대 간호대 교수님이 간호대 학과 과정, 간호대 건물 그리고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Nursing Simulation Center)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 대학은 훌륭한 교보재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포이팻학교에서 의료 봉사를 한 중앙대 간호대 출신인 두 명의 간호사 선배님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감염 컨트롤 센터 및 병원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아산병원은 거대했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잠실 롯데 백화점에서 점심밥을 먹고 롯데 아쿠아리움과 서울 스카이 타워를 구경했습니다.

여덟째 날, 프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간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라눗 올림



캄보디아에서 온 후원에 대한 감사편지



경상남도간호사회 이모저모

2023



2023년 본회 주요소식

대한간호협회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는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023년 2월 27일~2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간호백년 백년헌신’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1부회장에는 탁영란 현 대한간호협회 감사(한양대 간호대학 교수), 제2부회장에는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확정되었으며, 2년(2023~2024년) 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올해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훌륭한 선배님들의 정신을 받들고 계승해 대한민국의 간호 위상을 드높이라는 요구로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해 6개 항의 건의문이 채택되었으며, 대의원들은 일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간호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3년 3월 24일 그랜드머큐어 엠베서더 창원에서 개최했다. ‘간호백년 백년헌신’을 주제로 열린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남정자 교수(마산대학교 간호학과)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으로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제2부회장으로 신미란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이 확정되었으며, 선출된 이사·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 = 공명숙(마산의료원 간호부장) 김미영(창원파티마병원 간호부장) 김정호(마산대 간호학과 교수) 박신숙(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심봉희(창원경상국립대병원 간호부장) 옥형자(함안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윤연옥(창원하마음병원 간호부원장) 이숙희(창원문성대 간호학과 교수) 이정재(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조수정(거제맑은샘병원 간호부장) 하미경(양산부산대병원 팀장) 하영미(경상국립대 간호대학 교수) △감사 = 박옥명(전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전진선(전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총회 개최식에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의 영상 격려사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 강민국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으며, 정점식 국회의원, 강기운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마산대학교 이학진 총장이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총회 기념 수상자는 거제시 조수정 회원과 통영시 장영숙 회원이 경상남도지사상을, 김해시 권영채 회원

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을, 창원시 배인숙 회원이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을, 간호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김해시간호사회(단체)와 창원파티마병원 김진화 회원(개인)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간호법 홍보 '민트캠페인' 실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2023년 4월 7일 창원중앙역 내외에서 도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대국민 민트(mim'T) 캠페인 홍보부스를 개설했다. 남정자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홍보부스에서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배너를 설치하고 민트색을 활용한 복장으로 간호법 제정을 알리는 홍보전단지과 다양한 민트색 물품을 나눠줬다.

2023년 4월 21일 함안군공설운동장 수박축제에서도 간호법 홍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결의문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제52회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 참여

2023년 5월 12일 서울 세종대로(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에서 제52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축하하고, 반드시 공포되길 촉구하는 뜨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축하 한마당 행사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것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간호백년, 백년헌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간호법 제정 촉구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였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도 1,801명이 참여하였다.

2023년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 (ICN Congress)



2023년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ICN Congress 2023)가 캐나다 몬트리올 컨벤션센터에서 7월 1일~7월 5일 개최됐다. 국제간호협의회(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와 캐나다간호협회가 주최하였으며 '간호사 함께하다: 글로벌 건강을 위한 영향력(Nurses Together: A Force for Global Health)' 주제로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126개국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 간호사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교류하며 최신 간호 흐름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문 발표를 통해 한국간호를 알렸다. 본회에서는 남정자

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초강연, 메인 세션, 컨커런트 세션, 심포지엄, 네트워크 미팅, 마스터 클래스(시뮬레이션), 논문 E-포스터 발표 등이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에서 각국 간호사들의 경험과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마당이며, 2년마다 열린다. 차기 2025년도 학술대회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다.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개최 (간호대학·병원 간호부)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간호대학·병원 간호부)를 2023년 8월 29일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2층 빌라드룸에서 간호대학 교수 및 병원 간호부서장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개회사(남정자 회장)에 이어 올해에는 'M세대 간호사, Z세대 간호사 간의 세대 통합 공감 전략'을 주제로 참석자 전체인원을 그룹별로 나누어 토의 및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후원장학생 방문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2023년 9월 12일 캄보디아 장학생(라넷과 리헤잉)과 장학후원회 회원들을 본회 회관으로 초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이 자리에는 장학후원회 결성과 이번 한국 방문을 주도한 정순자 증경회장을 비롯해 배정옥 증경회장, 이경옥 증경회장, 마복순 전 특별위원과 안모니가 간호사가 참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양정식 신부와 조아름 봉사자가 함께 왔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경상



남도간호사회 조직과 활동에 대해 소개했으며, 앞으로 캄보디아 간호사로 활동하게 될 두 사람을 격려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장학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결성됐으며, 후원기금으로 캄보디아의 장학생 라넷을 2020년부터 지원했다. 라넷은 프놈펜 국제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했으며, 올해 12월 졸업할 예정이다. 이미 졸업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에 모두 합격한 상태이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장학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역대 회장님들과 간호사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52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2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 개최」



제52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2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을 2023년 9월 20일 경상남도간호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주최로 마산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하영미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발표자 및 공동연구자, 교육위원, 임원, 회원 등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었으며,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Ⅱ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가 간호실무에 적용되어, 간호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올해도 한국과 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에서 전문가 활용비로 지원해 주어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 제작비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Chat GPT의 윤리적 활용’ 특강(이문영 호남대학교 교수)이 이어졌다.

증경회장 간담회 개최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은 2023년 11월 6일 증경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옥(8~9대 회장), 김정석(10~12·14·16대 회장), 우선혜(19~20대 회장), 정순자(21대 회장), 조순옥(24대 회장), 이경옥(27~28대 회장) 남정자(현 경상남도간호사회장), 사무처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은 개회 및 인사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2023년 사업시행결과 및 간호정책 주요 현황 보고, 창립 80주년 행사 준비 등 간호계의 현안 문제와 질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행정자 세미나 개최

대한간호협회와 경상남도간호사회가 2023년 7월 20



일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에서 경남, 부산, 중앙회 임원 및 회원 총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행정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의 사회로 신경림 간호법 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호법 제정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감사,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전화연 이사, 백찬기 홍보국장이 클린정치, 민트 캠페인, 홍보전략 활성화 방안 등 그룹토의 및 발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23년 초청강연회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경상남도 내 간호사에게 새로운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 601~602호에서 경남 도내 재직 간호사(회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와인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으며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에티켓을 배우고,

와인을 시음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등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2024년에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초청강연회를 기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호부 Work Shop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요양병원 간호부 Work Shop’을 2023년 10월 25일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2층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남도 내 요양병원 간호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요양병원 간호실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경남도 내 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임원 등 87명이 참석했다. 요양병원 간호업무상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II’를 주제로 이해경 이노솔루션 진료적정화연구소 경남지사의 특강과 ‘요양병원 3주기 인증’ 조경화 푸른요양병원 간호부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내년에도 워크숍이 다시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평가표 교육을 분기별 및 단계별로 실시해 주고, 요양병원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개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사 Work Shop-임원 및 회원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가 주최하고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가 주관한 ‘간호사 워크숍-임원 및 회원’이 2023년 11월 4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남도간호사회와 15개 분회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경상남도간호사회 및 각 분회의 임원과 회원 62명이 참석했으며, 역사체험에 앞서 주요 간호현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함안박물관을 관람했으며, 성산산성을 탐방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봉사해준 함안군간호사회와 경상남도간호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참석



올해도 경남도 내 각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하여 축하 화분과 함께 축사로 선서생들을 격려하

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병원 등 간호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선서식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념과 가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종략-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의 역사를 보면, 1893년,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하퍼병원 간호학교 졸업식에서 최초로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한 이래로 1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학도들에게는 전통적인 예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대한간호협회에서 각 간호교육기관의 서약문을 통일하여 지금까지 각 간호대학의 선서식에서 낭독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간호사진전 참석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사진전을 '100년 기억 100년 돌봄' 주제로 '학교재 아트센터'(서



울 삼청동)에서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했다. 본회에서는 남정자 회장과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호사진전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의 지난 100년 발자취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전시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사와 시민들이 함께 만나고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국가 위기 때마다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용기와 백년헌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창조적 간호정신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통해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 참석



대한간호협회는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를 '한국간호 미래 100년, 간호법으로 열다' 주제로 11월 22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본회에서는 남정자 회장과 신미란 제2부회장, 우선혜 증경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야제에는 간호사들을 항상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대한간호협회와 간호 발전에 힘을 실어준 각계 인사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전야제는 카운트다운 및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대한간호협회 창립100주년 기념대회 참석

대한간호협회는 100주년 기념대회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비전 아래 2023년 11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6천여 명 중 본회에서



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식전 행사 △1부 100주년 기념대회 △2부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 △3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100주년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선포했다. 100년 슬로건으로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정책 정립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간호교육 혁신 △간호실무 역량 강화와 간호현장 개선 등을 채택했다.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5명,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간호협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또한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들,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대한간호협회 100주년을 축하했다.

간호역량개발사업(연구지원사업)

2020년부터 본회 회원들의 연구능력 함양,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호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신규간호사들의 간호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컨텐츠개발 및 활용으로 간호역량개발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였다.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원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장, 학교 등)에서 참여하여 다학제간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3년 9월 1일부



터 10월 27일까지 지원한 팀별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지원자 3팀 중 1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 연구과제명 : 환자안전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사 대상 교육영상 제작사업(주관 책임연구자: 남호희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임·직원 연수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임·직원 연수'를 2023년 12월 23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임원 및 직원들이 본회의 주요사업 결과를 검토하고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호정책을 이해하고, 간호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소속감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는데 뜻을 모았다. 전남 강진 백련사, 다산초당 등 문화 유적지 답사 및 탐방을 통해 화합을 다졌다.

경남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경남센터(남정자 운영위원장)에서는 경상남도 내 유휴 간호사 발굴, 교육 및 취업까지 지원하여 2023년 예상



목표 수 대비 교육이수자는 157%의 성과를 내었으며, 은퇴간호사를 위한 생애전환 세미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 직무교육이 490%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교육과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각189%, 300% 달성하였다. 그 외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교육과 실습지도자 양성교육, 실기교육 기본과정과 시나리오과정, EMR실기교육과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 이수자 및 신규간호사 대상 기본심폐소생술(BLS)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대상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취업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보건의료 관련 유공 표창 수상 현황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자 경상남도지사상 표창 (2023.09.05.)
 —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수상



○제6회 경남여성 한마음대회 경상남도지사상 표창 (2023.10.17.)
 — 성명숙 경상남도간호사회 제1부회장 수상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2023.11.23.)
 — 박형숙 서라벌대학교 교수 수상
 — 오영미 통영시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수상
 — 박신숙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수상
 — 전진선 전)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수상



○경남여성단체협의회 40주년 기념 경상남도지사상 표창(2023.12.13.)
 — 백인숙 함안군간호사회 제1부회장 수상

2023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

창원시간호사회 | 창립 2008. 06. 24.

간호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전개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는 2023년 4월 6일 창원대학교 나이팅게일선서식과 연계하여 간호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리더십이 탁월한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 50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날 간호학과 전임교원 및 재학생, 학과 조교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학대학 32호관 110호에서 창원시간호사회 회장이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청소년 대상 간호사 체험 교실 운영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는 2023년 12월 4일 창원여중 3학년 재학생 중 장래 희망이 간호사인 56명 대상으로 간호사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론교육은 간호사가 되는 길, 간호사 진출분야, 향후 전망, 일반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되는 길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이



루어졌다. 실습교육은 붕대 감기, 혈압 재기, 맥박 재기, 청진기로 심장소리 듣기, 방호복 입기, 격리가운 입기, 뷰박스(손씻기) 등을 체험하였다. 학생들이 특히 방호복 입기, 청진기로 자신의 심장소리 듣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간호사에 대한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주시간호사회 | 창립 2008. 07. 09.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참석



2023년 11월 23일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행사에 진주시간호사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걷기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특강

진주시간호사회(회장 박옥엽)는 2023년 11월 30일 특강으로 한국워킹협회 경남지부 이준기 회장님을 모시고 '걷기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간호역량 개발 사업 ‘두피 관리 및 탈모 예방법’
 진주시간호사회(회장 박옥엽)는 2023년 12월 7일 간호역량 개발 사업으로 ‘두피 관리 및 탈모 예방법’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개최하였다.
 염색과 스트레스, 직업 특성상 야간 근무 때문인지 탈모가 있는 회원이 많았고, 탈모로 걱정하는 회원이 많아 더욱 관심을 가졌다.

거제시간호사회 | 창립 2008. 10. 10.

간호봉사활동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이영진)는 2023년 10월 20일 지역사회복지시설(거제소망사회복지회)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혈당과 혈압 측정 방법과 관리 등)과 기본소생술 및 이물체에 대한 기도폐쇄, 상황 시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교육을 하였으며, 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호 나눔 봉사를 실천하였다.
 심정지 시 주변에 알리는 방법, 의식 확인 방법, 신고 방법, 가슴압박 등 강사님의 재치와 위트있는 교육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필요한 의료물품 전달식을 진행하였고, 이날 이영진 회장님 외 9명이 참석하였다.

통영시간호사회 | 창립 2008. 10. 10.

회원역량강화사업(옷칠 차반 만들기)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통영시 소재 세병관 백화당에서 2023년 10월 20일 2회차로 나누어 통영시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 50명이 간호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옷칠 차반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옷칠 차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심리적 치유 효과를 주었고, 지역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성단체 활동사업
 (노년기 여성의 건강신체 활동 및 문화공연)**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2023년 11월 8일 통영시 사회복지관에서 통영시 소재 주소를 둔 65세 이상 여자 어르신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상남도가 후원하는 여성단체 활동사업 일환으로 노년기 여성의 건강 신체활동 및 문화공연을 실시하였다.

행사는 1부에서 3부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장고팀의 공연과 활력 넘치는 노인건강을 위한 강연, 장기자랑 및 색소폰 공연이 있었다.

이웃돕기(인재육성장학금 기탁)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2023년 10월 18일 경상남도간호사회 지회 지원금 100만 원과 통영시간호사회 기부담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만 원을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에 기탁하였다.

언론에서는 이웃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통영시간호사회에 감사드린다고 기탁한 장학금은 통영시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동군간호사회 창립 2008. 11. 12.

간호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서미옥)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023년 7월 27일에 회원 11명을 대상으로 도자기 핸드페이딩을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26일, 8월 4일에는 퍼스널 컬러 찾기 강의 및 체험 실습을 실시하였다.

간호돌봄 봉사단 활동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서미옥)는 2023년 10월 28일에 회원 이수임 외 8명이 하동 우리들병원 입소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및 식사돌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023년 12월 16일에는 서미옥 회장 외 10명이 섬진강 사랑의 집 장애인 입소자 40명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운영하여 즐거운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군간호사회 | 창립 2008. 11. 20.

2023년 고성군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고성군간호사회(회장 이을희)는 2023년 11월 22일에 정기총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이후 처음 열렸으며, 이날 회원 27명이 참석하여 임원선출, 2024년 고성군간호사회 운영 및 간호봉사단 활동 등을 논의하였다.

김해시간호사회 | 창립 2009. 04. 07.

초청 강연회 실시



김해시간호사회(회장 이옥경)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회원들을 위한 대면 초청강연회를 2023년 9월 13일 개최했다. 회원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초청강연회는 '인문학을 배우다-김해 사람 남다' 주제로 열렸다.

최구식 한국선비문화원장이 초청돼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선비 정신에 대해 강연했다. 남명 조식 선생은 일생을 재야의 선비로 지내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

에 힘쓴 학자이다.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큰 물줄기인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산해정에서 18년 동안 기거하며 학문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해 알게 돼 뜻깊었고, "선비정신을 현대의 관점에 비추어 재미있게 풀어낸 강연에 몰입하게 됐다. 오랜만에 마련된 회원들 간 소통의 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김해시간호사회(회장 이옥경)는 제1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화환 대신 받은 쌀(120kg)을 기부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원기관에 쌀을 기탁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해시를 방문해 흥태용 김해시장에게 소외된 계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옥경 회장은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해시간호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간호사회 | 창립 2009. 05. 28.

2023년 양산시간호사회 총회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2023년 4월 27일 오후 4시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모모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145명의 회원이 참석



하였으며 2022년 사업결과 및 예결산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임원개선(감사 변경) 등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대지역사회 봉사사업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대지역사회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7일 양산 국화향연 행사에 양산시 간호사회 회원 22명이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초청 강연회 실시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2023년 12월 12일(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강당에서 'Orchestration' 음악을 듣다, 나를 듣다를 주제로 양산시 간호사회 초청강연회를 시행하였다. 총 109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오케스트라 속 다양한 악기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하모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거창군간호사회 | 창립 2010. 06. 18.

장학금 지원사업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최일희)는 2023년 8월 31일 경남도립거창대학을 방문해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거창군간호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해 매년 관내 6개 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2021년부터는 지역의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진행하게 됐다.

거창군간호사회는 2010년 창립돼 간호사들의 권익옹호와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거창군의 든든한 간호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호역량개발사업 '친환경 목공예품 만들기'

거창간호사회(회장 최일희)는 2023년 간호역량개발사업으로 '친환경 목공예품 만들기'를 2023년 9월 11일~9월 14일 실시했다.

3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목공예품 만들기는 회원 간의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고, 목공예 대한 특별한 경험 및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해군간호사회 | 창립 2013. 12. 20.

명절 이웃돕기 사업 및 홍보사업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2023년 9월 2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남해군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해 주었다. 위 사실을 지역신문에 홍보하여 남해군간호사회를 알렸다.

역량개발사업

‘감정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마음 다스리기’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2023년 8월 30일 남해군 간호사회 회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제공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회원들이 고된 업무에 지친 마음 힐링을 위하여 ‘감정 아로마테라피’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지역 사회사업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남해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써 총 5회에 걸친 회의 참석 및 양성평등주간행사 참석, 화전장터 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무 이윤정 회원이 남해군수 표창패를 받았으며 남해군에 소속된 여성단체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회원단합대회(가을여행)



남해군간호사회(회장 류진희)는 2023년 11월 5일 가을을 맞이하여 올 한해 바쁘게 지내 온 회원분들과 함께 가을 등산을 하였다.

서로 잘 모르고 지내던 다른 기관 회원분과 소통을 하

면서 남해군간호사회 회원이라는 자긍심과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합천군간호사회 | 창립 2015. 05. 26.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합천군간호사회(회장 김선돌)는 2023년 8월 28일 합천군 헌혈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합천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중증 수혈환자 증가와 헌혈자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합천군 간호사회 회원 10여 명은 시외버스터미널, 유관기관, 합천 황후시장 등을 이동하며 “9월 1일 합천군민 헌혈의 날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헌혈 안내 리플렛과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2023년 어르신 행복잔치 개최



합천군간호사회(회장 김선돌)는 2023년 10월 17일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어르신 400여 명을 모시고 ‘합천군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장진영 도의원, 성종태 합천군의회 부회장과 군의원, 합천군노인회지회장, 노인복지시설 대표자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합천군간호사회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몸과 마음의 안녕’으로 정하고 초청 강사의 건강강좌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색소폰 연주, 우리춤, 노래 등 공연과 합천군 치매안심센터 실버 합창단의 재능기부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함안군간호사회 | 창립 2017. 03. 27.

제4회 함안군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3년 6월 21일에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제4회 함안군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2022년 사업결과 및 예결산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제4대 임원진 소개 등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역량개발사업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간호사 역량개발사업을 2회 개최하였다. 1차는 2023년 10월 29일에 우두공방에서 도예체험 수업이 진행되었고, 2차는 2023년 12월 7일~12월 21일 기간 동안 숨춤요가센터에서 메디컬 요가를 진행했다.

간호사 역량개발사업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시



간을 제공하였다.

경상남도간호사회 간호사워크숍 개최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3년 11월 4일 경상남도간호사회 워크숍을 함안군간호사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임원 및 회원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라가야의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함안박물관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말이산 고분군과 성산산성을 탐방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말이산 고분군은 함안 9경의 으뜸으로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성산산성은 고대역사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700여 년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연 씨앗과 함안불빵의 모티브가 된 귀면와 그리고 전국에서 발견된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량의 목간이 쏟아져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역사의 중요한 산증인인 유물이 발견된 곳이다.

양성평등 행사 참석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3년 9월 8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양성평등 기념식에 회원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황미실 임원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봉사활동 실시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3년 1월 3일, 7월 31일, 11월 9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26일 6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봉사내용으로 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 제공 김장 봉사, 여성단체협의회 연계 관내 장애아동 20명 대상 증식 봉사 및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나누었다.

여성단체협의회 제40주년 기념식 참석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3년 12월 13일 여성단체협의회 제40주년 기념식에 회원 4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백인숙 부회장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2023년 간호법 제정 활동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심사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국회 앞)

- 01. 04.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23명 참여
- 01. 11.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22명 참여
- 01. 18.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16명 참여
- 02. 01. : 사무처장 및 회원 29명 참여
- 02. 08.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22명 참여

○국회 앞 1인시위 참여

- 01. 04. : 직원 1명(사무처장)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1인 시위 참여

- 01. 12. : 거창군간호사회 2명 (정윤경, 한상미)
- 02. 03. : 가야대학교 간호대학생 2명 (김예진, 오시현)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

- 02. 09.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4명 참여



○강기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 참여

- 2022. 05.16.~2023. 02. 09. : 매일 2명씩 참여



-2023. 03. 27.~ 04. 27. : 총 36명 참여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 참여

-2023. 03. 27.~03. 29. : 매일 2명씩 참여

○설연휴 주요 역·터미널 간호법 홍보 진행
(창원중앙역)

-01. 20. : 마스크 및 전단지 배포

○간호법 온라인 특강 이수(총 4회)

-02. 07. : 110명 / 02. 09. : 110명

-02. 16. : 80명 / 02. 22. : 35명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동시 수요한마당 개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03. 22. : 경남 회원 123명 참여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집회

-03. 29.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29명 참여

○간호 정책 관련 수요한마당 참여
(국회의사당 앞 인근)

-04. 05.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190명 참여

-04. 12.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345명 참여

-04. 19.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341명 참여

-04. 26.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348명 참여

○간호 정책 관련 권역별 문화마당 참여
(국회의사당 앞 인근)

-04. 06.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36명 참여

-04. 10.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32명 참여

-04. 18.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146명 참여



○간호법 홍보를 위한 '대국민 민트캠페인' 진행
: 전단지 및 홍보 물품 배포, 서명운동 실시

-04. 07. : 창원중앙역사 내외

-04. 21. : 함안군공설운동장 수박축제

○협회 및 지부 신임 임원 간호법 교육 참여

-04. 08. : 신미란 제2부회장, 심봉희, 옥행자 이사

○보건의날 기념 국회 대 토론회 참여

「보건의료종사자에게 적정인력기준을! 국민과 환자
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04. 06. : 국회의원회관/ 회장, 사무처장,
전진선 감사, 김미희 양산시간호사회장

2023년 간호법 제정 활동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노력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50주년 기념관 폭포 앞)
-04. 13/05.11. :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 180명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장 앞)
-04. 27. :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지부 회장 및 처장, 관계자 참석(경남지부 6명 참석)



○국제간호사의 날 행사 참여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05. 12. : 회원 및 간호대학생 1,885명



○간호법 제정을 위한 협회 임원 및 지부 회장
단식농성 참여(대한간호협회 회관 앞)
-05. 12.~05. 14. : 회장



○용산집회 참여(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05. 16.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25명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참여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05. 19. : 회장, 사무처장 및 회원 515명

○간호법 제정약속 이행촉구 및 이종성 법안 반대집회
참여(국회의사당 앞)

-05. 30. : 사무처장, 회원 및 간호대학생 6명



○준법투쟁 현황 파악 및 병원 격려 방문

-05. 31. : 회장, 사무처장
(통영직십자병원, 새통영병원,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통영정신병원)
-06. 02. : 회장, 전진선 감사, 사무처장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6. 07. : 회장, 사무처장
(창원파티마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SMG연세병원)
-06. 13. : 회장, 사무처장
(진주한일병원, 진주고려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체행동 전개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06. 22.까지 : 총 2,183개 협회 우편 발송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7. 14. : 박홍주 김해대학교 학부장

○2023 대외협력위원회의 참석

-08. 09. : 김영란 위원, 김은희 위원

○삼성창원병원 준법투쟁 관련 불법 신고 격려 방문

-08.16. : 회장, 사무처장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준법투쟁 관련 회원 면담

-09. 12. : 함안영동병원 백인숙 회원 면담 및 격려
(회장, 사무처장)

2023년 간호법 제정 활동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사진전 (국회의원 회관 로비)

- 10. 10. : 남정자 회장, 사무처장

○간호법 재추진 관련 비대면 정책특강(회장)

- 10. 13. / 11. 03.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간호사의 인권과 취업역량강화 특강(회장)

- 10. 31. / 11. 03. / 11. 28.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전야제

- 11. 22. : 회장, 신미란 제2부회장, 우선헌 증경회장
참석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

- 11. 23. : 회장 외 경남지부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264명 참여

○간호정책 관련 활동 확대

- 01. 11 : 정점식, 김태호 국회의원실 방문 및 면담
- 01. 13 : 정점식 국회의원실 방문 및 면담
- 02. 01 : 윤상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 02. 14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 참석(회장, 남정자 제1부회장, 권영채 이사, 전진선 이사, 손계순 감사, 허현점, 김영란, 정연심, 정채원, 박미향, 금혜정, 김주원, 김미남 김해시, 박민경, 서선화 경상국립대학교, 이상화 김해대, 여수경 회원, 사무처장, 총18명)
- 03. 09. :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및 민홍철 국회의원 간담회
- 03. 12. : 거제시간호사회 회원 및 서일준 국회의원 간담회
- 03. 13.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임명 축하 화분



- 03. 16. :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및 김정호 국회의원 간담회
- 03. 17. : 국회의원회관 경남지역 의원실 방문



- 03. 28. : 국회의원회관 경남지역 의원실 방문 및 강

기윤 국회의원 면담(회장, 사무처장, 전진선 감사)

- 04. 06. : 국회의원회관 경남지역 의원실 9곳 회장, 사무처장 방문(최형두, 조해진, 김정호, 이달곤, 정점식, 서일준, 김태호, 강기윤, 윤한홍 국회의원실)
- 04. 10. : 국회의원회관 경남지역 의원실 9곳 회장, 사무처장 방문 및 면담(조해진, 김영선, 정점식, 윤한홍, 서일준, 윤영석, 강기윤, 강민국, 박대출 국회의원실)



- 04. 26. : 정춘숙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회장, 사무처장, 전진선 감사)
- 07. 25. :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선출 축하 화분

○유대강화 및 정책제안



- 08. 21. : 강기윤 의원 지역사무실 방문 (회장, 사무처장, 공명숙 이사)
- 09. 04. : 강기윤, 정점식, 이달곤, 조해진 국회의원실 방문 및 면담(회장, 사무처장)
- 09. 18. : 강기윤 국회의원실 방문 및 면담 (김영경 협회장, 남정자 회장, 사무처장, 협회 직원)
- 10. 07. : 최형두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방문 및 면담 (회장, 신미란 제2부회장, 황현영 마산의료원 간호과



- 장, 서희숙 전)마산의료원 간호과장, 사무처장)
- 10. 10. : 박대출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 (국회 본청/회장, 사무처장)
- 10. 21. : 강기윤 국회의원 면담 (창원FC인근/회장, 사무처장)
- 11. 23. : 경남지역 국회의원(강기윤, 민홍철, 김정호, 박대출)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방문 및 회원과의 만남
- 12. 12. : 강기윤 국회의원 간호법 제정 추진 관련 비대면 면담 (회장)
- 12. 15. : 강기윤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방문 및 간담회 (회장 및 간호사 총 60명 참석)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

- 11. 24. :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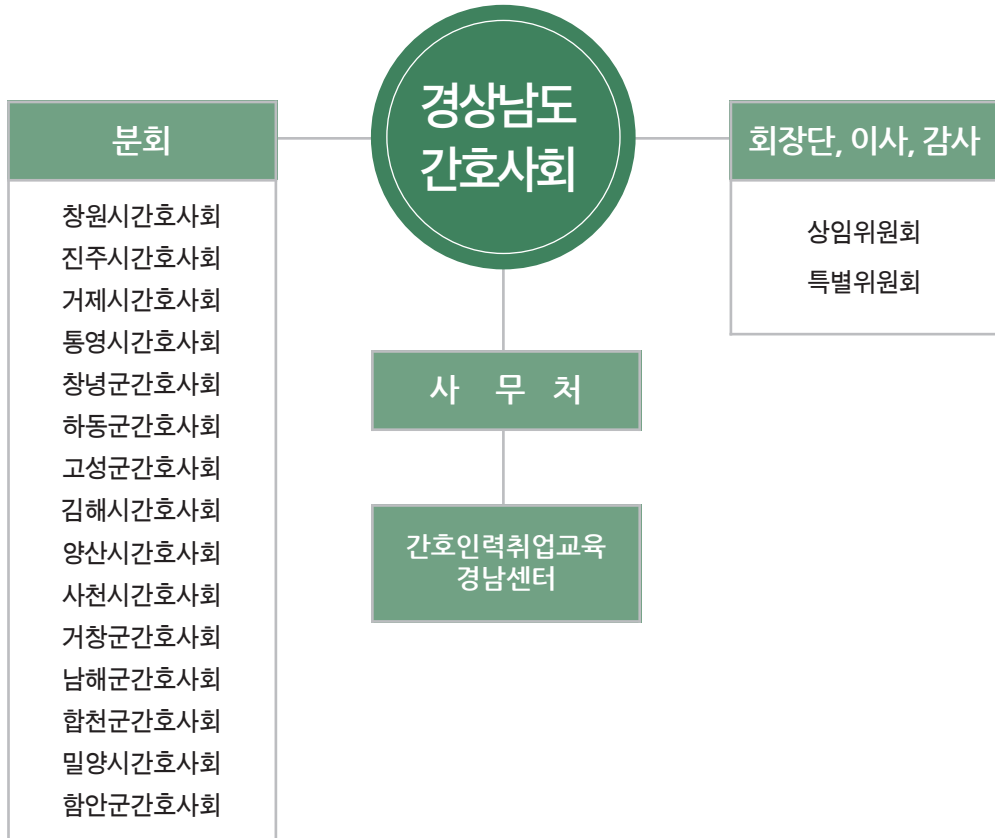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한·미 학술대회

- 11. 28. : 하영미 이사 외 1명

○언론매체홍보 및 인터뷰

- 05. 01. :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경남 간호법 관련 인터뷰(회장)
- 05. 09. : KBS 진주 라디오 간호법 관련 전화 인터뷰 (회장)
- 05. 10. : 창원일보 간호법 관련 인터뷰(회장)
- 05. 29. : KBS 진주 라디오 라이브진주 간호법 관련 전화 인터뷰(회장)
- 08. 14. : 2023년 8.15 광복절 경남도민일보 전면 광고 지역신문 게재

경상남도간호사회 기구표



2023년 경상남도간호사회 임원

직 위	성 명	근무처 및 직책	직 위	성 명	근무처 및 직책	
회 장	남 정 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 사	옥 행 자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윤 연 옥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원장	
제1부회장	성 명 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이 숙 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2부회장	신 미 란	전)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이 정 재	대우병원 간호부장	
이 사	공 명 속	전)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조 수 경	거제맑은샘병원 간호본부장	
	김 미 영	창원파티마병원 간호부장		하 미 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팀장	
	김 정 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하 영 미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 신 속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감 사	박 옥 명	전)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심 봉 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전 진 선	전)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2023년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회장

단체명	성명	근무처
창원시간호사회	송경희	전)창원마산보건의 보건행정과장
진주시간호사회	박옥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거제시간호사회	이영진	거봉백병원 간호부장
통영시간호사회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창녕군간호사회	권경순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
하동군간호사회	서미옥	하동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고성군간호사회	이을희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해시간호사회	이옥경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양산시간호사회	김미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사천시간호사회	최정숙	삼천포제일병원 간호본부장
거창군간호사회	최일희	임불보건진료소 진료소장
남해군간호사회	류진희	남해군보건소 치매예방팀장
합천군간호사회	김선돌	합천군보건소 의약담당
밀양시간호사회	김정화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함안군간호사회	옥행자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창립순)

2023년도 경상남도간호사회 상임위원

구분	직책	성명	근무처
기획위원	위원장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김영미	전)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과장
	위원	송경희	전)마산보건의 보건행정과장
		이옥경	전)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하주영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학과장
		황진희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장
		홍은주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법제위원	위원장	신미란	전)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강미숙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위원	김영란	큰바다요양병원 간호부장
		김호진	창원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미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과장
		이민주	영산대학교 간호학과장
		조경화	푸른요양병원 간호본부장
교육위원	위원장	하영미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경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위원	김세영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서연숙	삼성창원병원 병동간호팀장
		신지선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특수간호과장
		윤은숙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구미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적정관리팀장
재무위원	위원장	박신숙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김은숙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위원	김은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행정교육팀장
		박홍주	김해대학교 간호학부장
		이경란	창원한미음병원 간호과장
		조정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조정의	거봉백병원 간호본부장 겸 병원이사
홍보위원	위원장	이숙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고영숙	갑정보건진료소장
	위원	김주애	삼성창원병원 행정교육팀장
		남호희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인숙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심봉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윤소영	메트로병원 간호과장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처

구분	성명	직책
사무처	홍은주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
	하수정	경상남도간호사회 계장(회무 및 행정)
	손아름	경상남도간호사회 직원(회계)

T. 055-262-6006

E. kyn@koreanursing.or.kr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구분	성명	직책
간호인력 취업교육 경남센터	이경옥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팀장
	장아인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직원(교육)
	정현지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직원(회계)

T. 055-281-5522

E. rnjobkn@koreanursing.or.kr

포견지망자 레터



2023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하여 간호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재조명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발판이 되어 올해도 회원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장>

『경남간호』 통권29호의 발간을 앞두고, 미약하지만 편집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남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간호사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은 좀 더 다양하고 활기찬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고영숙 위원>

간호사라는 사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남간호』를 통해 또 다른 소통으로, 그리고 잡시의 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홍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간호사회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정자 회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김주애 위원>

간호사의 권리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관련된 사안으로 휘몰아치는 의료계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돌봄 업무를 이어가는 우리 지역 간호사 회원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경남 간호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경남간호』 회지에 차곡차곡 담아, 지역에 기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호희 위원>

봄 향기가 피어오르는 시작의 순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담아 『경남간호』에는 항상 밝고 좋은 소식이 가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경남간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경남간호사회 회원님들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철주야 발로 뛰어다니시는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처장님, 이사님 및 회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인숙 위원>



꽃샘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에서 싹이 트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결국 결실을 맺듯이 우리 『경남간호』의 한걸음이 다가올 간호백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심봉희 위원>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표해서 『경남간호』 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남정자 회장님 이하 홍보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용기와 도전을 상징하는 2024년 청룡의 해, 간호법 제정 통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윤소영 위원>





민트 min'T 캠페인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트다(민+트)라는 의미로
간호법이 존엄·맞춤·안심을 위한
부모돌봄을 담고 있는 '부모돌봄법'입니다



